

❖ 나훔 3 장, ‘니느웨의 비참한 멸망!’

❖ 들어가기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을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앗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1 장에서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심을 선포하시며, 그가 유다를 위로하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 2 장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적들의 공격과 약탈을 당하며 무너지게 될지를 매우 생생하게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하는 3 장은, 그럼 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당시 니느웨의 죄악과 영적 부패함을 지적하신 후,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 곧 니느웨의 죄악! (1-7 절)

1) 니느웨는 피의 성이었습니다. (1 절)

- 1 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 우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는 말은 ‘너는 분명히 망한다!’ 라는 저주의 표현!!
 - 특별히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 평가하심!
 - 이것은 당시 앗수르가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여 잔인한 살인과 악행을 멈추지 않고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을 지적하신 것!
 - 그런데 참고로 신학자 Maier 는 ‘피의 성’이란 말 그대로 당시 니느웨 성은 온갖 잔학한 행위로 살인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
 - “당시 니느웨는 포로들에게 온갖 잔학한 행위를 떡 먹듯이 일삼았다. 손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도려내고, 눈을 뽑아내고, 목을 쳐 떨어뜨리는가 하면, 나무에 매달아두거나, 성문 앞에 쌓아 전시했고(머리로 피라미드를 만듦), 심지어 산 채로 말뚝을 박아 놓고 아주 천천히 최후의 한 조각까지 온 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마성(魔性)을 드러내었다.” (The Book of Nahum: A Commentary, p. 292).
 -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온갖 거짓과 포악과 탈취까지 가득한 성이 니느웨 성이었다는 것!
- 2)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은 니느웨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대학살을 당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하셨습니다. (2-3 절)
- 2-3 절, ‘확확 하는 채찍 소리, 웅웅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음 당한 자의 떼,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쳐 넘어지니’
 - 본 절은 니느웨가 적들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는 상황을 점층법을 사용하여 묘사한 것!!
 - 예: 채찍 소리-> 병거 바퀴-> 뛰는 말->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죽음 당한 자..
 - 그런데 이것은 니느웨가 다른 나라에 행했던 일들! => 곧 행한 그대로 돌려 받게 하신 것!

3) 그럼 왜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까?

- 1 차적인 원인은 저들이 행한 지난 날의 모든 악행들 때문 => 곧 살인/거짓/포악/탈취.etc.
-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마치 기생이 음행을 탐하는 것처럼 니느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하며 오직 세상 권력만을 탐하여 열국들을 무참히 무너뜨렸기 때문!!

■ 4 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 우선 여기서 표현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는 당시 니느웨가 섬겼던 여신 ‘이스달’을 의미한 말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많은 음행은 철저한 우상 숭배를 지칭한 것이라 해석..
- 그런데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고 지적하심!
- 곧 앗수르가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짓누르며 속국으로 만들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

4)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열국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5-7 절)

■ 특별히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2 가지로 비유!

- ①. 5 절 ->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벌거벗은 것/ 부끄러운 곳을 뚫 민족에게 보일 것’
=> 니느웨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들추어 내시며 심판하실 것을 선언!
- ②. 6 절 ->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 + 구경거리가 되게 하실 것’
=> 니느웨가 따르고 섬겼던 우상들이 저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능욕거리/구경거리가 될 것!

■ 하나님은 7 절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게 되면, 니느웨의 멸망을 목격한 사람들이 니느웨의 황폐함을 선포하게 될 것이며, 니느웨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할 자는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심!!

-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는 어떠한 동정도, 하나님의 긍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 따라서 그 날이 오기전, 곧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이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임을 깨닫고, 항상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와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자!

2. ‘노아몬’처럼 망하게 될 니느웨! (8-11 절)

1) 하나님은 애굽의 도시 ‘노아몬’이 앗수르에 의해 무너졌던 것처럼 결국 니느웨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8-10 절)

■ ‘노아몬’

- 주전 663 년 앗수르가 정복한 애굽의 도시 ‘테베’를 가리킨 말로 히브리인들은 ‘노아몬’이라고 칭함.
=> 이유는 저들이 ‘아몬’신을 섬겼기 때문, 그래서 ‘아몬 신의 도시’=> ‘노아몬’이라 부름.
- 위치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정도 떨어진 Karnak 과 Luxor 부근으로 추정.

- 당시 ‘노아몬’은 문이 백 개나 있는 이집트 남쪽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과, 스팅크스, 그리고 오벨리스크(방첩탑)가 있는 화려한 도성이었다고 함. (호메로스, ‘일리아드’(IX. p.383)
 - ‘노아몬’의 장점(강점) : 8-9 절
 - a) 전략적으로 우세한 위치 (방어에 유리함) : 8 절
 - 나일 강 동편 제방 위에 건설 + 외곽 지역은 해안으로 둘러싸임.
 - 곧 사방이 물로 둘러져 있었고, 여러 가지 운하와 수로가 연결되어 많은 지역을 관통.
 - b) 정치적으로 유력한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음! : 9 절
 - 당시 ‘노아몬’은 정치적으로 애굽에 속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구스에 속한 도시!
 - 참고로 구스는 나일 강 상류 지역을 일컫는 지명으로 오늘날의 이집트 남부, 수단, 그리고 에티오피아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임. (애굽은 나일 강 하류 지역을 통치)
 - 따라서 당시 ‘노아몬’은 애굽을 비롯해 구스의 여러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던 도시!
 -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노아몬’은 앗수르의 ‘앗수르바니팔’ 왕에 의해서 무참하게 함락당함!
 - 대부분의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사로 잡혀갔고, 도시는 폐허가 됨.
 - 특히 당시 앗수르 군대는 어린아이들은 짐이 된다하여 무자비하게 학살함!!
- 2)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몬’의 패망을 상기시키신 후에, ‘니느웨’도 저들처럼 패망하게 될 것이니 빨리 숨을 곳을 찾으라 선언하셨습니다. (11 절)
- => 곧 니느웨의 멸망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

3. 적들앞에 니느웨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될 것! (12-19 절)

- 1) 하나님은 적들을 맞이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2 가지 비유로 예언하셨습니다. (12-13 절)
- 12 절: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흔들기만해도 다 떨어지는 것처럼, 적들의 공격에 니느웨 성은 힘없이 무너질 것!
 - 13 절: 군사들은 여인 같고, 성문들은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탈 것!
 - 곧 한때는 사자처럼 날뛰던 앗수르 군사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대적들이 몰려올 때는 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게 될 것!!
- 2) 하나님은 니느웨가 할 수 있는대로 수비를 잘 해보라고 조롱하시며, 그러나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4-15 절)
- 14 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 곧 도시가 포위될 것을 생각하여 미리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보라고 것!

- 15 절: ‘…네가 느치 같이 스스로 많이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이 할지어다’
 - 곧 모을 수 있을 만큼 ‘느치와 메뚜기 같이’ 군사들을 모아서 방어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
 - 그러나 그 안에서 불과 칼이 저들을 삼키고 베이도록 하실 것이라 예언하심!!
- 3) 하나님은 설령 니느웨가 하늘의 별처럼, 느치와 메뚜기 때처럼 군사들을 모았다 하더라도, 결국 한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16-17 절)
- 16-17 절,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이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갇혔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 특별히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이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라는 말씀은 니느웨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저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라 볼 수 있음!
 -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힘과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
- 4)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앗수르 왕에게 앗수르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18-19 절)
- 18-19 절, ‘앗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 18 절에 표현된 앗수르 왕에 대한 두가지 해석
 - ①. 멸망 당시인 주전 612 년에 앗수르를 통치했던 왕이라고 보는 견해
 - ②. 니느웨가 함락된 지 3 년 뒤인 주전 609 년에 앗수르 제국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노력했던 ‘앗수르우발릿 2 세’로 보는 견해
 -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 쪽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석.
 - 니느웨 함락에서 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한 왕족 ‘앗수르우발릿 2 세’는 황무하게 된 제국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시도했지만, 지도자들(목자와 귀족)은 이미 죽었고, 남은 백성들은 다 흩어졌기에, 저들을 다시 모아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애굽으로 망명한 뒤 역사 속에서 사라짐.
- 결국 수세기 동안 난공불락을 자랑하며 주변 나라들을 짓밟고 온갖 악을 행하던 앗수르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만 것!

❖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

❖ 중보기도 나눔